

류현진, 데뷔 첫해 14승 '활약' 그리고 2021년 60승 '금자탑'

2012년 LA다저스 '러브콜' MLB 진출...2013년 빅리그 데뷔 첫 승

아시아 최초 사이영상 2위·지난해 2년 연속 사이영상 후보 올라

토론토와 4년 8000만달러 '대형 계약' 성사 하며 지난 2019년 이적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메이저리그(MLB) 데뷔 9년 만에 통산 60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TD볼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 6⅓이닝 4피안타 1실점(비자책점)으로 호투를 펼쳐 토론토의 7-3 승리에 앞장섰다.

올해 첫 승이자, 통산 60승을 달성했다. 2013년 LA 다저스에서 데뷔한 류현진은 부상을 이겨내고 금자탑을 쌓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에이스였던 류현진은 2012년을 마친 후 다저스의 러브콜을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2013년부터 빅리그 마운드에 올랐다.

류현진은 데뷔 첫 경기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데뷔전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만난 류현진은 6⅓이닝 10피안타 5탈삼진 3실점(1자책점) 피칭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타선을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투수가 됐다.

그는 다음 경기인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 6⅓이닝 3피안타(1피홈런) 2실점으로 호투해 데뷔 첫 승을 신고했다.

류현진은 그해 8월3일 시카고 컵

연도	승	패	평균자책점	투구	승률	
2013년 8월3일	10승	20승	30승	40승	50승	60승
2013년 8월3일	1승	1패	1.89	14승	1.97	60승
2014년 6월1일	2승	2패	2.69	14승	3.77	60승
2015년 5월19일	3승	3패	1.97	14승	3.00	60승
2016년 9월29일	4승	4패	2.32	14승	3.38	60승
2017년 7월5일	5승	5패	2.32	14승	3.38	60승
2018년 9월29일	6승	6패	2.32	14승	3.38	60승
2019년 7월5일	7승	7패	2.32	14승	3.38	60승
2020년 4월14일	8승	8패	2.32	14승	3.38	60승

스와의 경기에서 5⅓이닝 11피안타 2실점으로 선발해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그는 데뷔 첫 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올렸다. 데뷔 시즌부터 192이닝이나 던지며 에이스급 활약을 선보였다.

류현진은 2014년 6월1일 피츠버그전에서 6이닝 10피안타 2실점 투구로 통산 20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2024년에도 14승을 올리며 메이저리그의 수준급 선발투수로 거듭났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부상이 찾아왔다. 어깨와 팔꿈치 부상 등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경기 밖에 뛰지 못했다.

어깨 수술 후 2017년 마운드에 복귀한 류현진은 부활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에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2018년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했지만, 경기수가 15경기에 그쳤다. 류현진은 2018년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40승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2018년 후 FA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다저스는 여러 차례 부상 이력이 있는 류현진에게 다년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FA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1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회 투구하고 있다.

계약 대신 1년짜리 웰리파이 오피(1790만 달러)를 수락했다.

절치부심한 류현진은 2019년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류현진은 2019년 커리어 타이 기록인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을 올리면서 견제함을 과시했다. 그해 7월 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쳐 대망의 50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2019년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으며, 그해 사

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9년 다시 FA 자격을 취득한 류현진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4년 8000만 달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류현진은 단축 시즌(팀당 60경기)인 2020시즌에도 12경기(67이닝)에 선발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 에이스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활약을 앞세워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기도 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류현진은 올해 힘겹게 첫 승을 신고했지만, 빅리그 통산 60승 고지를 밟았다. 올해 경기 결과에 따라 통산 70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류현진은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다 승 보유자 박찬호(124승)에 이어 이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다. 박찬호의 124승은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이기도 하다.



“잘 싸웠지만...” 한국 여자축구 이번에도 넘지 못한 올림픽 문턱

중국 넘지 못해 도쿄올림픽 본선 문턱서 좌절

잘 싸웠지만 올림픽 본선의 문턱은 높았다. 한국 여자축구가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렸으나 아쉽게 고개를 숙였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13일 오후 5시 중국 쑤저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예선 최종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8일 고양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1-2로 패한 한국은 1·2차전 합계에서 중국에 3·4로 뒤져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여자축구가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한 한국은 이번에도 축제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 여자축구는 1985년 3월 처음 여자대표팀을 출범해 1990년 9월 일본을 상대로 첫 A매치를 치렀다. 데뷔 전 결과는 1-13 완패.

여자축구가 일상화되지 않은 환경이었고,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이 늦었다. 그래도 꾸준한 지

원과 노력으로 성장세를 그렸다.

첫 올림픽 도전은 2004 아테네대회다. 최추경 감독의 지휘 속에서 당당히 도전을 했지만 중국, 북한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08 베이징대회 예선에선 일본, 태국에 패하며 다음을 기약했고, 2012 런던대회 예선에선 일본, 호주, 북한, 중국, 태국과 풀리그를 치러 1승1무3패로 5위에 머물렀다.

2016 리우대회 예선도 같은 결과였다. 험난했다. 전통적 강호 중국, 호주, 일본은 버거운 상대였다.

이번에는 개최국 일본이 자동으로 출전권을 얻어 상대하기 어려운 경쟁국이 하나 빠졌기에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중국을 버림받지 않으면 힘과 기량을 확인했으나 첫 올림픽은 허락되지 않았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혼신을 다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아쉬움을 삼켰다.

언젠가 이뤄질 첫 올림픽 본선행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뉴스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100일 남았는데...코로나로 준비 난항



14일로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막까지 100일이 남게 됐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급속 확산하면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확진 다시 3000명↑...오사카 도로 성화봉송 취소

14일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사카(大阪)부 도로에서 진행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중단됐다.

대신 만국박람회(엑스포) 기념공원 내에서 약 3km를 15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주자들은 각각 200m씩 달렸다. 일반 관객이 없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진행했다.

오사카부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도로에서의 성화 봉송 릴레이 실시 방법을 변경하는 검토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다시 심각

오사카부, 도로 성화봉송 취소 의료 체제 정비 등 제자리걸음 관중수 제한 논의도 지지부진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성화 봉송 릴레이 등에 고집해 감염이 확산하면 분방송인 대회(도쿄올림픽)이 중지(취소)되는 게 무섭다”고 우려했다.

NHK가 후생노동성과 지방자치단체 발표를 집계한 데 따르면 지난 13일 일본의 신규 감염자 수는 3455명으로 다시 3000명을 넘었다. 특히 이날 오사카의 신규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 1099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 조치인 ‘만연방지등중점조치(중점조치)’를 도쿄(東京)도·오사카(大阪)부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아이치(愛知)현 등 감염 상황이 심각한 지역으로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 인력 확보도, 관중수 제한 논의도 '지지부진'

신문에 따르면 일본 코로나19 감염

자 증가는 관계자의 상정을 웃도는 속도로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을 받아 해외 관중 입국을 포기했다. 당초 일본 정부가 그린 청사진은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되는 4월 국내 관중수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6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에 준하는 중점조치가 내려지며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생각보다 재확산이 빨리 종결을 받았다. (4월 내 관중수) 판단 시기를 늦추고 싶지만 무리 미룬다고 감염 상황이 나아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여론도 좋지 않다. 산노노리쓰(産業能率) 대학이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래 올림픽 개최 조건은 “무관중 밖에 없다”는 응답이 69.2%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무관중 개최’로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 조직위원회가 900억엔(약 9246억원)이라는 티켓 수입 등을 잃게 된다. 마이니치는 감염 확산으로 새로운 딜레마가 있다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코로나19 감염

김광현, 시즌 첫 출격 확정

18일 필라델피아전...허리 부상으로 시즌 출발 늦어져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부상을 털어내고 시즌 첫 등판에 나선다.

14일(한국시간) CBS스포츠에 따르면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김광현이 18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던 김광현은 허리 통증으로 시즌 출발

이 늦어졌다. 개막 로스터 대신 부상자 명단에서 2021시즌을 맞은 김광현은 재활을 거쳐 컨디션을 다시 끌어 올렸다.

시뮬레이션 게임 등판으로 투구 수를 늘려갔고, 지난 12일에는 86개의 공을 뿌리며 실전 등판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김광현이 합류하면서 세인트루이스



는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한다. 2차례 선발 등판에서 6⅓이닝 8실점으로 부

진했던 폰세 데 레온이 불펜으로 이동한다.